

광주 군공항 이전 출구 찾을까



30일 민간·군공항이 공동 배치된 광주시 광산구 소재 광주공항 계류장에 민간항공기가 대기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공항이전 논의 다시 시작 ... 상생협력 사업 기대

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참여
지역 미래위해 손 맞잡기로
군공항 이전 범정부 주도 촉구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광주·전남의 상생협력 정책과 사업들도 제 궤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수차례의 물밑접촉을 통해 광주시의 유감 표명, 전남도의 수용,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참여, 광주·전남 상생협력사업 재개 등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는 광주시가 지난해 말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사실상 보류한 데 반발해 올 초 전역 삭감한 행정통합 용역 예산 2억원을 추가 경정예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는 또 상생협력을 공동 목표로 정하고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광역철도망 구축, 지역균형 뉴딜 등 초광역 협력사업 공동 발굴, 광주·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는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정부 국토발전 및 성장전략에 맞서 지역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

로운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강 광주시 대변인은 30일 보도자료에 내고 “광주 민간 공항 이전이 보류되고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중단되는 등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도는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군 공항도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광주시는 그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광주·전남 상생, 동반 성장 차원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면서 군 공항 이전 문제의 범정부 주도 촉구에 대해 광주시와 한목소리를 냈다. 이견없 전남도 대변인은 “민간공항 이전 보류 등 시도 간 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한 광주시의 유감 표명을 수용한다”고 답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현안으로 범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전남도·국방부·국토부 등 4자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던 전남도가 총리실 주관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 범정부 협의체에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면 전남도는 이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남도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등 국가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시·도 대변인 성명이 나오기 전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과 명정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수 차례 만나 광주·전남 미래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공동으로 요청하고, 광주시가 유감표명을 하는 선에서 ‘군공항 이전 갈등’으로 막혀있던 광주·전남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전남도가 시민들에게 갈등과 마찰을 빚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공감했다”며 “과거에 얽매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양 시·도가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하철역 초미세먼지를 잡아라 ▶6면

KIA 시범경기 뎀엔 ‘혼폴’·이의리 ‘쾌투’ ▶18면

신 전남인 - 담양 오피션·김승미 부부 ▶22면



이의리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미술축제’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오늘 개막

40여개국 69작가 참여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Minds Rising, Spirits Tuning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미술축제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31일 프레스 오픈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드디어 돛을 올린다. <관련기사 3면·16면>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두 차례나 연기됐고 전시 일정도 4월1일부터 5월9일까지, 당초 72일에서 39일로 대폭 축소됐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40여개국 69작가(팀)가 참여해 2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광주리서치 등을 통한 40여점의 신작도 만날 수 있다.

전시 공간은 본전시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올해 처음 전시장으로 활용되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극장, 양림동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이다. 또 2018년부터 진행해온 광주 비엔날레 커미션과 파빌리온 프로젝트, 5·18 40주년 기념전 ‘메이투데이’전 등이 비엔날레 기간 동안 옛 국군광주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서 열려 광주 시내 곳곳이 전시장으로 변신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데프네 아야스·나타샤 진발라 공동 예술감독이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온라인 전시를 강화, 공식웹사이트와 유튜브채널,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주제전의 첫 번째 전시장으로 활용됐던 1전시실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했다는 점이다. 이곳에는 오우티 피에스키의 ‘함께 떠오르기’ 등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과 함께 매표소, 의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 행사 기간 동안 쉬는 날 없이 운영했던 광주비엔날레는 올해 처음으로 월요일 휴관하며, 전시 오픈 시간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로 한 시간 늦췄다. 또 단체 관람객은 받지 않으며 전시관람은 예약제와 현장 판매를 병행해 운영한다.

개막식은 31일 오후 7시 30분 비엔날레전시관 앞 광장에서 열린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예술감독의 영상 전시설명 등이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내일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광주 8만 6342명 대상

서구·남구지역부터 시작

전남 21만5000여명 대상

여수·순천·목포부터

4월 1일 오전 9시부터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일제히 시작된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다.

<관련기사 2면>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접종 대상자는 8만6342명이다. 광주시는 4월 첫째 주엔 서구·연주종합체육관과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서·남구 노인시설 40개소 1541명, 75세 이상 3만 2197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일단 화이자 백신 8트레이(9360회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하루 평균 1000명 정도가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접종 대상자 중 75세 이상은 80%대의 접종 동의율을 보였다.

전남지역 접종 대상자는 모두 21만5000여명이다. 도서지역 거주자는 정부·전남도 별도 대책에 따라 접종이 이뤄진다. 접종은 1일부터 목포, 여수, 순천지역부터 시작한다. 목포시 4095명, 여수

시 3510명, 순천시 4095명 등 1만 17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백신 공급 규모, 일정 등을 고려해 시군 협의를 거쳐 이들 지역에 예방접종센터를 우선 설치했다. 이어 4월 15일까지 22개 시군에 모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백신 공급 부족 등으로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접종에 동의한 75세 이상 노인은 접종 이를 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예약신청을 해야 한다. 접종 일정이 확정된 뒤 대상자 통보를 받아야 접종할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 접종을 위해 전남도는 지난 29일까지 시군 읍면동 직원과 이통장 협조를 받아 백신 접종 동의서를 받고, 대상자 등록을 진행했다. 접종 동의율은 전체 대상자 20만7000명 대비 67.6%, 조사 완료자 16만명 대비 77.8%라고 전남도는 전했다.

한편, 이날 기준 광주 코로나19 예방 접종자는 3만 5288명이다. 1분기 대상자 4만5357명 대비 77.8% 접종률이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자는 150명이다. 전남지역 백신 접종자는 4만1766명이다. 1분기 대상자 6만661명 대비 68.9% 접종률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2weeks
고령성 고안도 주름이 생기면
당겨 주름 등을 12주 만에 개선
IOPE LAB